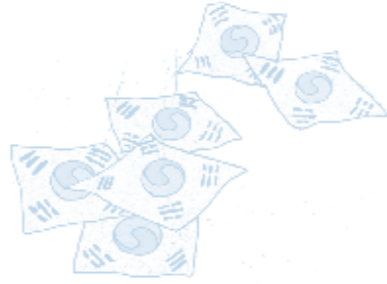


어린 만세꾼

정명섭 지음 | 김준영 그림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6학년 국어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말하기 / 인물의 입장이 되어 말하기

4~6학년 사회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 말하기 / 3·1운동의 역사 알아보기

분 야	한국 창작동화, 역사 동화
활 용	독서 퀴즈, 창의적체험활동, 역할 놀이
주 제 어	#3·1운동 #한국_근현대사 #독립선언서 #항일학생운동
선 정 내 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 온라인서점 알라딘 선정 좋은 어린이책
작 성	상주 상영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어떤 책인가요?

■ 책의 내용

1919년 경남 밀양의 만세 운동 대열 맨 앞에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잘살게 해 준 거라는 학교의 가르침에 의문과 분노를 느끼고 진실을 찾아나선 아이들은 '밀양소년단'이라 불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재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어린 만세꾼들의 활약이 정명섭 작가의 끈질긴 조사와 상상력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 사계절 가족 서평단 윤서영 어린이의 책 소개

지금까지 나와 나이가 같은 5학년 아이들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고, 만약 들었다 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와 똑같거나 비슷한 나이에, 그것도 16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구호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용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용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모두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

■ 상주 상영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의 책 소개

학생들도 3·1운동이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비폭력 항일 투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도 알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보통학교 학생,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앞장 서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사실은 거의 모른다. 역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대부분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사실을 나열하는 데에 그친다. 학생들은 3·1운동 역시 100년 전 그때 멈췄다고 여긴다. 하지만 3·1운동은 여전히 우리나라 헌법 첫 부분에 언급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광주학생운동으로, 4·19혁명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6월 항쟁과 촛불 집회로 그 정신을 이어 가고 있다. 3·1독립 선언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 현장에는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여야'라고 적혀 있다. 『어린 만세꾼』을 읽고 3·1운동은 그 현장의 정신에 따른 운동이었음을 알고, 그 감동을 느껴 보길 바란다.

■ 학습 목표

- 책 속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이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용기 있는 투쟁을 벌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 관련 자료

- 어린 만세꾼들의 3·1 독립 선언서 낭독 영상



- 작품에 등장하는 '밀양소년단' 관련 독립운동 판결문

<https://bit.ly/2LnfZbo>

-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사진 자료: [일제 강점기, 그날의 학교] 밀양공립보통학교

<https://bit.ly/2XRB3bV>

■ 관련 답사지

- 밀양독립운동기념관 <http://www.miryang815.or.kr/>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활동을 전시한 기념관입니다. 『어린 만세꾼』 주인공 중 '김덕수'의 실제 모델인 강덕수 열사에 대한 자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윤세주와 밀양소년단 아이들이 태극기를 만든 장소인 '영남루'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밀양의열기념관 <http://www.euiyeol815.or.kr/>

의열단을 만든 약산 김원봉 생가터에 세워진 독립운동기념관. 『어린 만세꾼』에 등장하는 김원봉, 윤세주를 비롯하여 박재혁, 김익상 등 의열단 주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준비	시대 배경 알아보기 - '일제 강점기' 하면 떠오르는 낱말로 마인드맵 그리기 - 뒤표지 읽고 이야기 생각하기 -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기	1차시
독서	「너무너무 싫은 학교」 읽고 활동하기 - 지금, 학교가 너무 싫을 때 - 1919년, 학교가 너무 싫을 때 - 내가 덕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1차시
	「역사와 역사」 읽고 활동하기 - 인물들의 대화를 되짚으며 생각하기 - 개인적인 의견과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다를까?	1차시
	「윤세주와의 만남 / 불온 학생 / 밀양소년단」 읽고 활동하기 - 윤세주 인터뷰 하기 - 〈나의 독립 영웅-윤세주 편〉 영상 보기 - 밀양소년단 모집 광고 만들기	2차시
	「저항」 읽고 활동하기 - 저항은 어떤 뜻일까? 나의 경험이나 지식 나누기 - 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차시
	「1919년 / 만세 시위」 읽고 활동하기 - 3·1운동 재현하고 소감 나누기	1차시
	「어린 만세꾼」 읽고 활동하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 연결하기 - 역할 바꾸어 이야기해 보기	1차시
독서 후	-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의 감동 -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알아보자 -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소망 담은 깃발 만들기	2차시

독서 준비-시대 배경 알아보기

1. '일제 강점기' 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메모지에 생각나는 낱말을 적어 한데 붙이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왜 그 낱말을 적었나요?



선생님께 한 사람씩, 혹은 두셋씩 짝을 지어서 낱말을 적고, 칠판에 붙인 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나 생소한 낱말을 살펴보고, 그 낱말을 적은 학생이나 교사의 설명을 보태도 좋습니다. '3·1운동'이 나오지 않았다면 교사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도 좋습니다.

2. 『어린 만세꾼』 뒤표지 글을 읽고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린 만세꾼'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만세 부를 거예요. 밀양소년단은 겁먹지 않아요.”

1919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 대열의 맨 앞에는 서로 손을 꼭 잡은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태극기를 만들고, 친구들을 설득해 교문을 나섰습니다. 위험하니 물러서라는 어른들의 말은 어린 만세꾼들을 겁줄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어른과 아이가 따로 없으니까요. 100년 전, 총칼 앞에서도 작은 손을 높이 들었던 어린 만세꾼들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어린 만세꾼』은

3. 3·1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 참고 영상: <하나된 만세(3·1운동)>



선생님께 3·1운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영상을 함께 봅시다. 『어린 만세꾼』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3·1운동 관련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어 책 읽기 전 흥미를 북돋아 주세요.

「너무너무 싫은 학교」 읽고 활동하기

1. 여러분에게 '학교가 너무 싫은 때'는 언제인가요?

2. 덕수는 왜 학교가 싫었나요? 1919년의 보통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은 왜 학교가 싫었을까요?

3. 내가 덕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께 각자 글로 적어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 모둠 활동인 경우 '학교 가기 싫은 때'를 만화로 그려 볼 수도 있습니다. 덕수가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조선인이어서 차별과 폭력을 당해서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보다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과 1919년의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역사와 역사」 읽고 활동하기

1. 덕수와 친구들의 대화를 되짚으며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시끄러워. 근데 말이야, 조선 사람이 왜 일본 신화를 배워야 되냐?”
“그거야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윤암이가 통명스럽게 말하자 덕수가 고개를 저었다.
“배워도 우리나라 신화를 먼저 배워야지. 단군 신화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조선에도 신화가 있다고?” (『어린 만세군』 21-22쪽)

1) 홍이관 훈도는 왜 학생들에게 일본 신화를 가르쳤을까요? 덕수는 왜 조선 사람은 조선 신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2)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신화'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세요.

선생님께 자유롭게 의견 나누기를 어려워한다면 활동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군 신화를 비롯해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바리데기 신화 등 한국 신화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 봅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신화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고 묻습니다.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나 신비함, 자랑스러움 등을 느꼈다면 그때 다시 질문 1)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한국에 신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왜 일본의 신화를 가르쳤는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2-1) 이순신, 김옥균, 을지문덕에 대해서 흥이관 훈도와 덕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보고 인터넷이나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봅시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훈도가 말한 내용	덕수가 아는 내용	우리가 찾은 사실
이 순 신			
김 옥 균			
을 지 문 덕			

2-2) 만약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생님께 모둠 활동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순신과 김옥균,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다른 책 혹은 자료를 비치해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활동이 불가하다면 학생들은 훈도와 덕수의 이야기만 정리해 비교하고, '우리가 찾은 사실' 칸은 교사가 채워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사를 왜곡해서 가르쳤음을 학생들이 직접 느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윤세주와의 만남」 「불온 학생」 「밀양소년단」 읽고 활동하기

1. 여러분이 윤세주를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질문지를 작성해 가상 인터뷰를 해 보세요.

취재 노트

날 짜:

오늘의 인물: 윤세주

일일 기자:

예상 질문:

선생님께 일일 윤세주를 맡을 학생의 자원을 받거나, 교사가 종절모를 쓰고 윤세주가 되어 교실 한가운데 앉습니다. 일일 윤세주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밀양소년단과 함께했던 밀양 사람 윤세주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면 자유롭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2. 영상을 통해 윤세주를 만나봅시다.
〈KBS 나의 독립 영웅-윤세주 편〉



3. 밀양소년단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일을 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밀양소년단 모집 광고를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든 광고는 교실 뒷편에 붙여 보세요.

도저히 못 참겠다, 모여라!

밀양소년단 모집



가입 조건

더 이상 차별받기 싫은 조선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

조선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친구들에게 알리기

활동 장소

동화서점

가입 방법

*월 *일 *시, 후문 창고 앞에서 암호 '을지문덕'을 외칠 것!

「저항」 읽고 활동하기

1.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직접 실천해 본 '저항'의 예를 적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주세요. 내가 부모님께 했던 행동, 혹은 책이나 만화 속 주인공의 행동,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행동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저항: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선생님께 민주 시민 정신으로서 '저항'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촛불 집회나 간디의 저항을 예로 든 뒤 학생들이 각자 자료를 찾아볼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2. 앞서 이야기한 '저항'이나 책 속 인물들의 '저항'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저항할 수 있나요? 부당한 무언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적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 보세요.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그 이유는...

1.
2.
3.

선생님께 동료, 돈, 용기, 신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 적은 내용을 모둠별로 공유한 뒤, 가장 많이 나온 요소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발표해 볼 수도 있습니다.

「1919년」 「만세 시위」 읽고 활동하기

1. 전국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3·1 만세 운동을 재현해 봐요.

놀이 방법

반 친구들 모두 한 곳에 모여 앉습니다. 3·1 만세 운동 현장에 있었을 사람이나 물건을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상상한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모두 조선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인, 서양인, 태극기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다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물건이나 사람이 되어, 3·1 만세 운동 장면을 완성합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정했다면, 다시 편한 자세로 서 있다가 진행자(덕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 모두 함께 자기가 정한 역할을 3초 동안 연기해 봅니다.

선생님께 ‘덕수’ 역할을 맡고 싶은 학생을 미리 정해, 그 학생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운동 재연’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재현을 펼치는 동안 그 학생은 독립선언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낭독합니다. 교사가 그 역할을 맡아도 괜찮습니다.

‘덕수’ 역할이 낭독하기 좋은 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오.” -독립운동가 손병희

2. 만세 운동에 참여한 소감이 어떤가요? 자신의 역할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어린 만세꾼」 읽고 활동하기

1. 마지막 장 「어린 만세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인상적인 장면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결해 보세요.

1)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2) 시간 순서대로 장면 연결하기

--	--	--	--

선생님께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꼽은 장면을 4-5장면(모둠 수대로) 정한 다음 모둠별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뒤에 연결해 보아도 좋고, 해당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하게 한 뒤 순서대로 연극을 펼쳐 보아도 좋습니다.

2. 『어린 만세꾼』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이야기 나눠 봅시다.

나는 네 명 중에 윤암이에게 가장 공감했어. 내가 윤암이었다면...

독서 후

3월 14일, 밀양 보통학교 재학생 백육십 명이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은 밀양에서 더는 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만세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저녁, 윤태선과 강덕수를 주축으로 한 밀양 보통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육십여 명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중략)

『어린 만세꾼』은 밀양 어린이, 청소년들의 만세 운동을 모티브로 쓴 이야기이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물들의 이름, 사건의 순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들이 윤세주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만세 운동에 나섰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봉과 함께 일장기를 버렸다 퇴학당한 실제 인물인 독립운동가 김상득은 올해 초 100년 만에 보통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세주라는 독립운동가가 지하에서 활약하는 와중에도 '만세 운동을 자중하라'는 이완용의 글이 신문에 실리고, 일본인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만세 운동 참가자를 고발하는 '자제단'에 가입하라고 재촉한 당시의 시대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밀양에서 어린이들이 용기있게 만세 운동에 나섰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린 만세꾼』 작가의 말 중에서)

1. '작가의 말'에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인물들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쓴 이야기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2. 이 책에는 '소년들'이 주로 나오지만 오마리아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한 '소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에는 누가 있나요?

선생님께 유관순, 김마리아, 권기옥, 남자현 등 어린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보여 주어도 좋습니다.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독립운동가였음을 알려 줍니다.

※ 참고 영상: 지식채널e <소녀들> 편



3. 1919년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2019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뉴스 등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토론 주제를 정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1) 문제를 살펴볼 데부터 정하기

나의 삶 / 우리 집 / 우리 학교 / 우리나라

2) _____가(이) 더 나아지려면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가)

나)

다)

4.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정했다면, 100년 전 사람들이 독립의 소망을 담아 태극기를 그렸듯, 자신의 바람을 담은 깃발을 만들어 봅시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함께 깃발을 그리고, 독립군들이 그랬듯이 깃발에 서명을 해 보세요.

선생님께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어린이에게 놀 시간을 줘야 한다!' '서로 평등해야 한다!' 등 다양한 외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친 것처럼, 모두가 함께 서명한 깃발을 흔들며 자신들만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